



《 2006. 4. 12 간담회 일지 》

2006년 4월 12일 제2축산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종오리 관련 부회장 및 계열회사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본 회의에는 농림부 축산경영과 이재용 과장, 최염순 서기관, 권동태 사무관이 참석하여 자리를 함께했다.

간담회를 개최하게 된 배경은 오리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가격안정을 위한 핵심사업으로 추진해 온 수입 종자오리 배정과 관련하여 부회장과 계열회사 간에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오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가격안정을 통한 오리업종사자의 소득증대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었다.



▲ 간담회 진행 모습



▲ 발언중인 (주)화인코리아 나원주 대표

1. (주)화인코리아 수출용 종오리 별도 배정건

♠ 화인코리아측 입장

현재 국내시장만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현재 거래선을 여러 군데 확보하고 있고 올해는 베이징에도 수출예정이다.

또한 등록제, 쿼터제 등 곧 시행될 여러 사업을 봤을 때 국내 필요량이 늘어날 경우 수출물량 배정은 더 확보되어야 한다.

앞으로 수출업체도 늘어날 것이고 물량 또한 늘어날 것이기에 수출물량을 늘려야 한다.

만일 수출이 중단될 경우 국내 시장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더욱이 국내 시장에서만 경영을 하는 것보다 수출을 늘리는 것이 오리업계 자체에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하였다.

일본의 성수기와 비수기를 맞추어 수출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성수기에만 수출을 한다면 생산라인의 능률성이나 원가절감과 같은 문제에 있어 중국이나 태국에 비해 불리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연중 지속적인 수출을 한다는 전제하에 일본과 계약을 하였고 그렇기 때문에도 수출용 종오리 별도 배정이 필요하다.

더욱이 현재와 같이 오리시세가 천정부지에 이르는 시점에서 수출은 생각조차 할 수 없다.

협회가 창구일원화로 PS를 수입하는 제도하에서는 누가됐든지 수출물량은 주어야 한다. 게다가 PS수입하여 수출용으로 사육하기까지는 적어도 8~10개월 가량이 소요된다.

우리가 요구한 10,452수의 종오리도 수입하게



되면 결국 내년부터나 수출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수출용에 대해 필요유무를 논한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

◆ 다른 의견

물론 화인측에서 가장 많은 물량의 오리를 수출하는 것은 알고 있다. 그러나 현재 화인 외에도 주원, 모란, 삼호 등 몇 개 업체에서도 일정량 수출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수출업체나 수출량도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데에는 동의한다.

화인측에서는 성수기에만 수출을 하는 것이 사실상 힘들고 성수기와 비수기 모두 연중 지속적인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수출용 물량을 추가배정해 주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 것은 어폐가 있다고 본다.

사실 우리나라는 성수기를 5~8월로 보고 있고 일본의 성수기는 9월~2월까지로 보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성수기일 때 일본이 비수기이고, 반대로 일본이 비수기일 때는 우리나라가 성수기이다. 현재 주원산오리의 경우에도 예년보다 올해 더 많은 물량을 수출할 예정이고 코리아더카드 역시 새로이 수출을 할 예정에 있다. 그러나 이들 업체들 모두 비수기물량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수출을 준비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물량이 부족할 경우는 종란감축하는 부분에서 밀어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더구나 수출에는 많은 변수가 있게 마련인데 항생제 잔류검사라든지 AI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 반쯤되는 물량은 재수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경우 재고발생 시 내수용으로 돌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발생하는 재고량은 국내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또한, 2006년 9월까지의 종오리 배정이 완료되어 추가배정이 불가한 실정이다.

2. 종오리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사항

● 목적

현재 사육되고 있는 종오리 실태조사를 통하여 종란생산, 새끼오리생산, 분양사항, 종오리 도태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오리물량 수급조절 및 경쟁력 강화

● 기대효과

- 종오리의 체계적 관리로 우수한 새끼오리 생산체계 구축
- 종오리 사육현황 파악으로 생산량 사전에 측으로 가격안정에 기여
- 종오리 도태시기의 체계적 관리로 과잉생산방지
- 오리축사 현대화작업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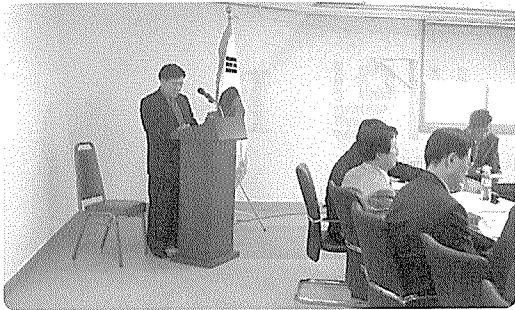
● 사업추진계획

- 종오리 사육농장 및 부화장별 기초조사 실시 D/B 작성관리
 - * 상반기 중 기초조사를 위한 현장 방문예정
 - * 농림부에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계획 제출
 - * 미등록 종자오리에서 생산된 물량 덤핑근절에 기여

◆ 협회측 입장

현재 가장 시급한 문제가 종오리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이며 축산연구소와 같이 병행하여 진행키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부화장에서는 건축 등 기부 등본 및 평면도까지 참조하여 종오리 데이터베이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또한 카메라로 각각의 축사 촬영, 평면도, 위치, 길이, 재원까지 해서 PS 및 F1이 몇수까지 사육중인지 조사 후 데이터화해야 국내에서 사육중인 종오리 수를 파악할 수 있다. 그 후 체리벨리사, 그리무드사와 적정 종오리 수입에 관해 자세히 논의하는 것도 가능하다.



▲ 간담회 진행중인 이강현 부장



▲ 발언중인 코리아더카드 문순금 대표

3. 종오리 등록제 추진 관련사항 협의

- 종오리 등록제 실시로 우수 새끼오리의 안정적 확보
- 오리 검정사업 실시

♣ 농림부측 입장

2003년 구제역 발생이나 AI도 마찬가지로 질병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종자 생산단계부터 철저히 해야 한다. 몇 년 전 협회에서도 종오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자고 했으나 당장 혈통관리가 되지 않고 제도가 구축이 안 된 상태에서 바로 도입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생산자 단체인 협회가 중심이 되어 1년간 준비하라고 하였다. 그간 농림부와 생산자 단체간의 간담회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계속 거론되어 왔기 때문에 사실상 준비기간이 1년정도 소요되었다.

종오리 문제는 쿼터제한이 없다. 오리의 경우 체리벨리에 유독 집중된 특수한 상황이라 그러한 것이지 타 축종의 경우 품종이 다양하기 때문에 쿼터가 따로 필요치 않고 자율적이며 정부가 터치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다.

농림부에서는 한우, 젓소, 돼지, 닭 4개 축종에 종축개량을 하고 있어 실제로 종오리장을 방문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협회 자체관리가 필요하다. 국가에서는 모든 축종에 같은 공익을 부여해야 한다. 결국 업계에서 불신감을 털어내고 협력하여 어떻게든 안정된 산업구축에 힘쓰는 것이 우선이다.

논쟁이 되는 부분은 서로 합의점을 찾아내려 노력하고 각 업계도 조금씩 양보하여 상생의 길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

♣ 일부 종오리 등록제 시행 유보 의견

- 종오리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없는 상황에서 등록제 실시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므로 종오리의 안정적인 공급체가 선행되어야하므로 등록제 시행을 유보해야한다.

♣ 협회 입장

- 종오리 등록제 실시 필요성은 모두 공감하고 있는 실정이다.
- 현재 2007년 1월1일부터 실시하는 것이 기본 입장이나 종오리 D/B 구축 추진을 진행하고 있고 시행시기에 대한 여러 의견이 있어 구체적인 의견집약을 하여 합리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최종 의견을 농림부에 제출할 계획이다.